

#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장시기별, 자료유형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 연구

## Correlation of Reading Quantities in Developmental Period and Reading Material Type-Centered on Jeonju Girls' High School Freshmen

이 승 채 (Seung-Chae Lee)\*

### < 목 차 >

I. 서론	1. 성장시기별, 자료유형별 독서량
1. 연구의 목적	2. 성장시기별, 자료유형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
2. 연구의 방법	3.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3. 선행연구	IV 결론
II. 관련연구의 요약	1. 분석 내용의 요약
III. 성장시기별 자료유형별 독서량 및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	2. 제언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여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여고생 시절까지 성장하면서 각 시기별로 읽는 도서의 양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 각 자료유형별 상관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밝히고 이 결과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내용과 비교하여 신뢰성 있는 이론을 창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활용한 서베이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성장시기별 자료유형별 독서량 등을 조사하고 통계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정 시기에 특정 매체(일반도서, 만화, 잡지)를 많이 이용하면 다른 시기에도 동일 매체를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어린 시절 만화의 독서량이 많은 학생들은 상급학교에서 일반도서를 읽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키워드: 독서량, 성장시기, 상관관계, 시기별 독서량, 자료유형별 독서량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rrelation of reading quantities in various media (magazines, books, comic books) and different developmental phases of women high school students. I surveyed reading quantities in developmental periods, by questionnaires. As a methodology of empirical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198 students at the Jeonju Girls' High School. Statistical techniques of a Pearson Correlation Test were employed according to my hypotheses. The results of this survey are as follows: 1) Reading quantities of specific media of specific period is correlated with reading quantities of same media of other period 2) Reading quantities of books is correlated with reading quantities of comic books.

Keywords: Reading Quantity, Developmental Period, Correlation, Magazine, Comic Books, General Book

\*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create@chonbuk.ac.kr)

• 접수일: 2008년 11월 18일 • 최초심사일: 2008년 11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8년 12월 22일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과정에서 많은 책을 읽게 된다. 유년기에는 주로 읽기 쉬운 동화책이나 그림책을 보고, 성장하면서 점차 난해한 내용의 자료를 읽게 된다. 물론 사람들마다 자료에 대한 취향이 다르고 그 취향도 성장하면서 계속 변화한다.

학자들은 학생들이 양질의 자료를 많이 읽도록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연구를 행하여 왔다. 부모나 현장의 독서지도 담당자들은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많은 독서를 하도록 유도하고 양질의 자료를 선택하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많이 읽게 하는 일이 용이하지는 않은 것 같다.

김강일 등은 성장하여 책읽기를 좋아하게 되거나 싫어하게 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들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그들의 저서를 통하여 주장하였다<sup>1)</sup>. 독서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아동 및 청소년기의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관련된 실증적 데이터를 제시하는 경우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장 시기별, 자료유형별 독서량을 조사하고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sup>2)</sup> 대체로 특정시기의 일반도서 독서량은 다른 시기의 일반도서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크고, 특정시기의 만화 독서량은 다른 시기의 만화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크며, 특정 시기의 잡지 독서량은 다른 시기의 잡지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연구에서 분석된 내용 가운데 특이한 점은 초등학교 이전 시기의 독서량과 그 이후의 독서량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오랫동안 연구자에게 의문으로 남았다. 또 대학생들보다 연소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타날 것인지 등도 의문으로 남았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후속의 연구를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방법론과 관계된 저서와 논문들을 보면 문헌정보학 연구에는 오랫동안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을 발견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학자들은 연구를 통하여 특정 이론들을 창출하면 그 결과 밝혀진 내용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효용을 지속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특정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이론들이 오랫동안 효용이 지속되고 여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차례 검증된 사실이라도 시차를 두고 다시 검증하거나 조사

1) 김강일, 김명옥, 평생성적 초등학교 4학년에 결정된다(서울: 예담출판사, 2004), p.83

2) 이승채, "성장시기별, 자료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2호(2008), pp.147-164.

대상에 변화를 주어 다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행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초등 학교 취학 이전, 초/중/고등학생 시기의 자료유형별 독서량 및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둘째 이 결과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던 이전 연구와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일관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현재 여고생들의 성장 시기별, 자료유형별 독서량은 어느 정도인가? 여고생들의 성장시기별 자료유형별 독서량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 결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 내용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로 서베이 및 통계처리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편의추출법 및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2007년 3월 1일부터 3월말 사이에 배포되고 회수되었다.

여고생들의 성장시기별 자료유형별 독서량에 대하여 조사하고 통계처리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은 이전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유사하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다양한 남녀 대학생들을 모두 대상으로 포함하여 분석을 행하였는데 남녀간의 성향 차이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다소 애매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본 연구에서는 특정 연령의 여학생으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주여자고등학교 1학년(대부분의 경우 만 15세) 학생 198명을 배포대상으로 정하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정한 것은 대학생들에 비하여 어린 시절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통계처리는 전북대학교 응용통계연구소에 의뢰하였고 통계처리기간은 2008년 1월 4일부터 1월 30일까지였다. SPSS12.0을 이용해 피어슨의 표본상관계수를 구하여 성장시기별 자료유형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3.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 독서실태를 밝히는 연구들은 많이 있다. 매년 문화관광부에서는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고<sup>3)</sup>, 김병주는 아동의 독서실태조사에 대하여 연구하였다<sup>4)</sup>. 정혜성은 여성근로자들의 독서실태조사에 관하여 연구한 바 있다.<sup>5)</sup> 이만수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실태를 조

3)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news/press\\_view.jsp](http://www.mct.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news/press_view.jsp)> [인용 2007. 5. 14].

4) 김병주, "아동의 독서실태조사," 도서관학, 8집(1981), pp.157-182.

5) 정혜성, "여성근로자들의 독서실태조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연구, 2집(1993), pp.73-84.

사하였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의 독서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발표된다. 그러나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국내외 자료에 대한 다양한 검색을 통해서도 이승채의 성장시기별, 자료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외에는 발견할 수 없었다.

## II. 관련 연구의 요약

전술한 바와 같이 성장시기별, 자료유형별 독서량의 상관관계에 관한 문헌들은 국내외를 조사하여도 거의 없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일한 논문이 “성장시기별, 자료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이다. 이 논문 속에 제시된 대학생들의 독서 경험 및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여고생들의 독서 경험과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들의 독서 경험에 관하여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밝혀진 사실들을 요약하면 특정시기의 특정자료 독서량은 다른 시기의 동일자료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크며 중학교 재학시와 고등학교 재학시의 종류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이다. 연구에서 밝혀진 중요한 사실(상관계수 0.20이상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재학시 등의 일반 도서 독서량은 상호 간에 대단히 높은 상관관계(상관계수 0.80이상)가 있다.
- ② 초등학교 잡지 독서량은 중학교 잡지(0.33), 고등학교 잡지(0.27)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있다.
- ③ 초등학교 만화 독서량은 중학교 만화 독서량과 높은 상관관계(0.60)가 있고 중학교 잡지 독서량(0.38), 대학교 만화 독서량(0.31), 대학교 잡지 독서량(0.31), 고등학교 잡지 독서량(0.30), 고등학교 만화 독서량(0.28) 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 ④ 중학교 만화 독서량은 고등학교의 만화(0.61), 잡지(0.38), 일반도서(0.21)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있다.
- ⑤ 중학교 잡지는 고등학교 잡지(0.89)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초등학교 잡지(0.33), 고등학교 만화(0.22)와도 상관관계가 있다.
- ⑥ 고등학교 재학시의 만화와 잡지 독서량은 서로 상관관계(0.29)가 있다.
- ⑦ 대학교 만화 독서량은 고등학교 만화 독서량(0.39), 중학교 만화 독서량(0.30), 대학교 잡지(0.24)와 상관관계가 있다.
- ⑧ 대학교 잡지 독서량은 고등학교 잡지 독서량(0.50), 초등학교 잡지 독서량(0.27), 중학교 잡지 독서량(0.27), 대학교 만화 독서량(0.24)과 상관관계가 있다.

이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초등학교 이전 시기의 독서량 등 오래전에 이루어진 일

에 대한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다소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 보다 연소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한다면 어린 시절의 독서경험에 대하여 더욱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Ⅲ. 성장시기별 자료유형별 독서량 및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

#### 1. 성장시기별, 자료유형별 독서량

##### 가. 취학전 아동도서 독서량

취학전의 아동도서 독서량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응답대상자들에게 <거의 보지 않았다>, <적게 본 편이다>, <많이 본 편이다>, <대단히 많았다> 등 상대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설문지의 해당 항목에 표시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을 보면 취학전 <책을 많이 보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46.0%(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단히 많이 보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4.2%(48명), <적게 보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21.2%(42명), <거의 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4.5%(9명) 순이었다. 응답자의 70.2%가 취학전에 <책을 많이 읽었다>고 응답하거나 <대단히 많이 읽었다>고 응답하여, <책을 적게 보았다>, 또는 <거의 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많았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에서 그들의 64.8%가 취학전에 아동도서를 <많이 읽었다> 또는 <대단히 많이 읽었다>고 응답한 결과와 비교하면 더욱 높은 수치이다.

<표 1> 취학전 독서량

구분	빈도	퍼센트(%)
거의 보지 않았다	9	4.5
적게 본 편이다	42	21.2
많이 본 편이다	91	46.0
대단히 많이 본 편이다	48	24.2
무응답	8	4.0
합계	198	100.0

##### 나. 일반도서의 시기별 독서량

<표 2>는 일반도서(교과서와 학습 참고서를 제외)의 학기당 독서 빈도를 시기별로 제시한 결과이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0권을 읽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27.8%)을 차지하였다. 즉 1/4 이상의 학생이 초등학교 시기에 교과서나 참고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책을 읽은 기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1~9권>을 읽었다는 응답이 21.7%, <10~19권>을 읽었다는 응답이 19.2%, <20~29권>이 9.6%, <30~49권>이 9.1%로 나타났다.

중학교 시기에는 <1~9권>을 읽었다는 응답이 32.8%, <10~19권>을 읽었다는 응답이 20.2%,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응답이 25.3%, <20~29권>이 8.6%, <30~49권>이 5.6%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시기에는 <1~9권>을 읽었다는 응답이 41.4%, 읽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경우가 25.3%, <10~19권>이 21.7%, <20~29권>이 5.1%, <30~49권>이 3.0%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권도 읽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모든 시기에서 25~28%로 나타났고 이를 제외하면 <1~9권>을 읽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1~9권>을 읽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고등학교 시기에는 40%이상으로 나타나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중학교 시기에도 32.8%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1~9권>을 읽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혀 읽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적지만 두 번째로 높은 21.7%로 나타났다. 또한 독서량으로 구분할 경우 대체로 독서량이 증가할수록 읽은 사람의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다른 시기에 비하여 책을 전혀 읽지 않은 사람의 수도 가장 많지만 또한 <100권 이상>의 책을 읽은 사람의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시기에는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도가 가장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기서 나타난 일반도서 독서량은 김병주가 1981년도에 조사한 독서실태 조사와 대체로 유사하게 보인다. 김병주는 아동(초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실태 조사를 한 바 있는데<sup>6)</sup> 초등학교생들은 월 3권(한 학기에는 18권으로 판단됨)이하로 읽는 학생들의 비율이 48.4%에서 69.6% 사이로 밝혀졌고 중학생들은 73.8%(1학년)내지 78.6%(2학년)로 밝혀진 바 있다. 기준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과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학생들의 독서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표 2〉 시기별 일반도서 독서량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0권	55	(27.8)	50	(25.3)	50	(25.3)
1~9권	43	(21.7)	65	(32.8)	82	(41.4)
10~19권	38	(19.2)	40	(20.2)	43	(21.7)
20~29권	19	(9.6)	17	(8.6)	10	(5.1)
30~49권	18	(9.1)	11	(5.6)	6	(3.0)
50~99권	8	(4.0)	8	(4.0)	7	(3.5)
100권 이상	17	(8.6)	7	(3.5)	0.0	(0.0)
합계	198	(100.0)	198	(100.0)	198	(100.0)

6) 김병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8권(1981. 12), pp.157-158

다. 만화책의 시기별 독서량

〈표 3〉은 만화책의 학기당 독서 빈도를 초/중/고 시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만화책의 시기별 독서량을 보면 만화책을 읽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만화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고등학교 재학시 58.6%, 초등학교 재학시 50.5%, 중학교 재학시 36.4%를 차지하였다. 만화책을 읽은 학생들의 경우 만화 독서량은 〈1~9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종합적으로 초등학교 시기에 만화책을 〈1~19권〉 읽은 학생은 22.7%, 중학교 시기에 읽은 학생은 24.7%, 고등학교 시기에 읽은 학생은 20.2% 등의 비율로 나타났고, 50권 이상의 만화책을 읽은 학생들은 초등학교 시기에 13.1%, 중학교 시기에 20.2%, 고등학교 시기에 7.5% 등의 비율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중학교 시기에 만화책을 많이 읽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시기별 만화책 독서량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권	100	(50.5)	72	(36.4)	116	(58.6)
1~9권	22	(11.1)	29	(14.6)	26	(13.1)
10~19권	23	(11.6)	20	(10.1)	14	(7.1)
20~29권	17	(8.6)	10	(5.1)	17	(8.6)
30~49권	10	(5.1)	27	(13.6)	10	(5.1)
50~99권	9	(4.5)	16	(8.1)	6	(3.0)
100권 이상	17	(8.6)	24	(12.1)	9	(4.5)
합 계	198	(100.0)	198	(100.0)	198	(100.0)

라. 시기별 잡지책 독서량

〈표 4〉는 잡지의 시기별 독서 빈도를 제시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잡지를 한 권도 읽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50.5%(100명), 중학교에서 36.4%(72명), 고등학교에서 58.6%(116명)로 나타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잡지를 가장 적게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시기별 잡지책 독서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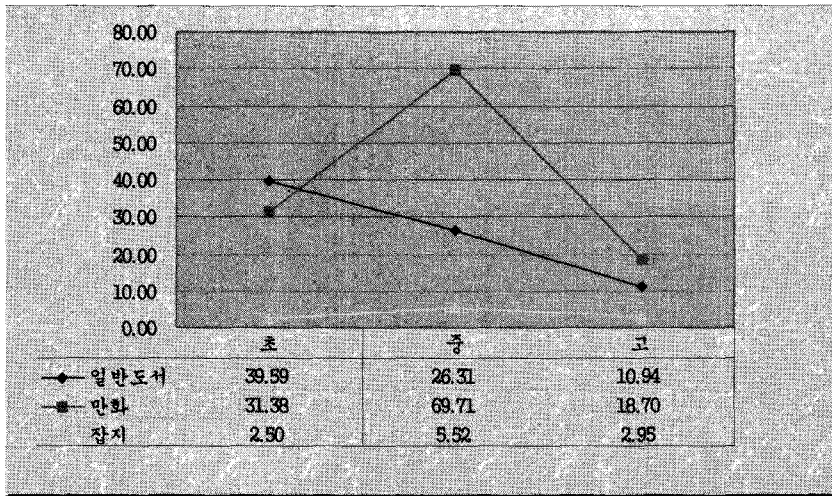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권	100	(50.5)	72	(36.4)	116	(58.6)
1~9권	40	(20.2)	55	(27.8)	59	(29.8)
10~19권	7	(3.5)	17	(8.6)	9	(4.5)
20~29권	3	(1.5)	4	(2.0)	1	(0.5)
30~49권	1	(0.5)	2	(1.0)	1	(0.5)
50~99권	0	(0.0)	0	(0.0)	1	(0.5)
100권 이상	0	(0.0)	2	(1.0)	0	(0.0)
합 계	198	(100.0)	198	(100.0)	198	(100.0)

더불어 <1~9권>을 읽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20.2%(40명), 중학교에서 27.8%(55명), 고등학교에서 29.8%(59명)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50권> 이상의 잡지를 읽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 0.0%, 중학교 1.0%, 고등학교 0.5%로 나타나 극히 낮았다.

마. 시기별 독서량 비교

<그림 1>은 일반도서, 만화, 잡지의 학기당 평균 독서량을 분석한 결과이다.

일반도서 독서량은 상급학교 시기로 갈수록 감소하였고, 만화 독서량은 중학교 시기에서 다른 시기에서보다 높은 독서량을 보였다. 또한 잡지는 전반적으로 시기별 독서량의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내용과 비교하면 일반도서와 잡지의 독서량은 비교적 유사하지만 만화 독서량의 경우는 중학교 시기가 고등학교 시기에 비교하여 월등하게 높다는 점을 차이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대학 입시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독서시간이 부족한 고등학교 학생들은 입시와 관련이 적은 만화자료를 읽기가 최근에 더욱 어려워진데 반하여 상대적으로 입시문제에서 자유로운 중학생들은 만화자료를 더욱 많이 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1> 자료유형별 평균 독서횟수

2. 성장시기별, 자료유형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

가. 고등학교 시기 독서량의 상관관계

응답자들의 모든 시기의 자료유형별 독서량과 고등학교 시기별 자료유형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1) 취학전 아동도서 독서량과의 상관관계

〈표 5〉는 취학전의 독서량과 고등학교 재학시기의 자료(일반도서, 만화, 잡지)별 독서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5〉를 보면 취학전 독서량과 고등학교 자료유형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는 자료의 종류에 무관하게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학전 아동도서의 독서량이 고등학교에서 읽는 일반도서, 만화, 잡지 등의 독서량에 영향력이 없고 무관함을 의미한다. 이는 이전에 행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도 모두 일치한다.

〈표 5〉 취학전과 고등학교 독서량 간의 상관계수

비교	기준	도서(고)	만화(고)	잡지(고)
	취학전 아동 책 독서량		0.10	-0.01
p-value		0.23	0.92	0.93

(2) 초등학생 시기 자료유형별 독서량과의 상관관계

〈표 6〉은 초등학교 시기의 자료유형별 독서량과 고등학교 시기의 자료유형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6〉을 보면 초등학교 시기 일반도서 독서량이 고등학교 시기 일반도서 독서량(유의수준 1%)과 만화 독서량(유의수준 5%)에 상관관계가 있고, 초등학교 시기 만화 독서량이 고등학교 시기 일반도서 독서량과 만화 독서량(유의수준 1%)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초등학교 시기 잡지 독서량이 고등학교 시기 잡지 독서량(유의수준 1%)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상관관계가 유의한 상관계수는 모두 양수로 나타나,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고등학교 시기의 해당 자료들의 독서량이 초등학교 시기의 독서량에 비례하여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이 중 초등학교 만화 독서량과 고등학교 만화 독서량 간의 상관계수가 0.71로 높게 나타나, 초등학교 시기에 만화를 많이 읽은 응답자가 고등학교에서도 많은 양의 만화책을 읽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고등학교 일반도서 독서량에 초등학교의 일반도서와 만화 독서량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독서량 간의 상관계수

비교	기준	고등학교		
		도 서	만 화	잡 지
초등학교	도 서	0.44	0.24	0.16
	P_value	0.00**	0.04*	0.20
	만 화	0.40	0.71	0.22
	P_value	0.00**	0.00**	0.13
	잡 지	0.18	0.15	0.48
	P_value	0.23	0.45	0.00**

(유의수준 \*: 0.05, \*\*: 0.01)

이 결과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관계별 유의성 여부와 비교해보면 일부 관계는 유의성 여부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즉 초등학교 만화 독서량과 고등학교 일반도서 독서량, 고등학교 만화독서량과 초등학교 일반도서 독서량, 고등학교 잡지 독서량과 초등학교 만화 독서량 등의 관계는 유의성 여부가 일치하지 않는다.

(3) 중학교 시기 자료유형별 독서량과의 상관관계

〈표 7〉은 중학교 시기의 독서량과 고등학교 시기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교 시기 일반도서 독서량이 고등학교 일반도서(유의수준 1%), 만화(유의수준 5%)와 잡지(유의수준 5%) 독서량에, 중학교 만화 독서량이 고등학교 일반도서(유의수준 1%)와 만화(유의수준 1%) 독서량에 중학교 잡지 독서량이 고등학교의 만화(유의수준 1%) 독서량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유의한 자료간 상관계수는 모두 양수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중학교의 독서량이 증가할수록 고등학교 독서량이 증가함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시기 일반도서 독서량은 고등학교 일반도서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높았으며(상관계수 0.58), 중학교 만화 독서량은 고등학교 만화 독서량과 상관관계(상관계수 0.72)가 아주 높았다. 이외에 중학교의 잡지 독서량이 고등학교 만화 독서량에 높은 상관관계(상관계수 0.41)를 나타냈다.

이 결과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관계별 유의성 여부와 비교해보면 중학교 일반도서 독서량과 고등학교 만화 독서량, 고등학교 잡지 독서량과 중학교 일반도서 독서량, 고등학교 잡지 독서량과 중학교 만화 독서량, 고등학교 잡지 독서량과 중학교 잡지 독서량 등의 관계는 유의성 여부가 일치하지 않는다.

〈표 7〉 중학교와 고등학교 독서량 간의 상관계수

비교	기준	고등학교		
		도 서	만 화	잡 지
중학교	도 서	0.58	0.24	0.25
	p_value	0.00**	0.04*	0.04*
	만 화	0.35	0.72	0.06
	p_value	0.00**	0.00**	0.65
	잡 지	0.20	0.41	0.26
	p_value	0.10	0.00**	0.05

유의수준 \*: 0.05, \*\*: 0.01

(4) 고등학교 시기 자료유형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

〈표 8〉은 고등학교에서 독서한 각 자료(일반도서, 만화, 잡지)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고등학교 자료유형별 상관관계는 일반도서 독서량이 만화 독서량에 유의수준 1%에서 영

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두 자료유형별 상관계수가 0.34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고등학교에서 일반 도서를 많이 읽는 학생들이 만화도 많이 읽음을 의미한다. 동시기의 잡지 독서량은 일반도서 및 만화 독서량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관계별 유의성 여부와 비교해보면 세 가지 상관관계 가운데 고등학교 일반도서 독서량과 고등학교 만화 독서량, 고등학교 잡지 독서량과 고등학교 만화 독서량 등의 관계는 유의성 여부가 일치하지 않는다.

〈표 8〉 고등학교 시기 자료유형별 독서량 간의 상관계수

비교		기준	고등학교	
			만 화	잡 지
고등학교	도서		0.34	0.05
	p_value		0.00**	0.68
	만 화			0.16
	p_value			0.29

유의수준 \*: 0.05, \*\*: 0.01

다. 중학교 시기 자료유형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

응답자들의 취학전, 초등학교 시기 자료유형별 독서량과 중학교 시기 자료유형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더불어 중학교 시기 자료유형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1) 초등학생 이전 아동도서 독서량과의 상관관계

〈표 9〉는 취학전의 독서량과 중학교 자료(일반도서, 만화, 잡지)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취학전 독서량과 중학교 만화, 잡지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는 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취학전 독서량과 중학교 일반도서 독서량은 유의수준 1%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두 자료 사이의 상관계수는 0.29로 양의 값을 나타내, 취학전 책을 많이 읽은 응답자가 중학교에서 일반도서를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관계별 유의성 여부와 비교해보면 세 가지 상관관계 가운데 중학교 일반도서 독서량과 취학전의 독서량의 관계는 유의성 여부가 일치하지 않는다.

〈표 9〉 초 입학 전과 중학교 독서량 간의 상관계수

비교		기준	도서(중)	만화(중)	잡지(중)
취학전(p-value)			0.29(0.00**)	0.06(0.49)	0.05(0.67)

유의수준 \*: 0.05, \*\*: 0.01

(2) 초등학생 시기 자료유형별 독서량과의 상관관계

〈표 10〉은 초등학교에서 읽은 독서량과 중학교 자료(일반도서, 만화, 잡지)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10〉을 보면 초등학교 일반도서 독서량이 중학교 일반도서(유의수준 1%)와 만화, 잡지(유의수준 5%) 독서량에, 초등학교 만화 독서량이 중학교 일반도서, 만화, 잡지 독서량 모두에 유의수준 1%에서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초등학교 잡지 독서량이 중학교 일반도서(유의수준 5%), 잡지(유의수준 1%)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유의성을 나타낸 자료의 상관계수는 모두 양수로 나타나,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자료 간에는 자료유형별 초등학교 독서량이 증가할수록 중학교 독서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중 초등학교 일반도서와 중학교 일반도서의 독서량 간의 상관계수는 0.73(유의수준 1%)으로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였으며, 초등학교 만화 독서량과 중학교 만화 독서량 간의 상관계수도 0.66으로 분석되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 초등학교 잡지 독서량과 중학교 잡지 독서량 간의 상관계수도 0.61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의 특정 자료 독서량이 중학교의 동일 자료 독서량에 영향이 있음을 의미하여 초등학교 독서량의 증가가 중학교의 독서량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 결과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관계별 유의성 여부와 비교해보면 아홉 가지 상관관계 가운데 두 가지 즉 중학교 일반도서 독서량과 초등학교 잡지 독서량, 중학교 잡지 독서량과 초등학교 일반도서 독서량 등의 관계는 유의성 여부가 일치하지 않는다.

〈표 10〉 초등학교와 중학교 독서량 간의 상관계수

비교	기준	중학교		
		도 서	만 화	잡 지
초등학교	도 서	0.73	0.25	0.31
	p_value	0.00**	0.01*	0.01*
	만 화	0.32	0.66	0.36
	p_value	0.00**	0.00**	0.00**
	잡 지	0.40	0.20	0.61
	p_value	0.01*	0.18	0.00**

유의수준 \*: 0.05, \*\*: 0.01

(3) 중학생 시기 자료유형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

〈표 11〉은 중학교 자료(일반도서, 만화, 잡지)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중학교 일반도서와 만화, 잡지가 각 유의수준 1%와 5%에서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해당 자료 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양수로 나타나, 중학교 일반도서의 독서량이 증가할수록 중학교 시기의 만화와 잡지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관계별 유의성 여부와 비교해보면 세 가지 상관관계 가운데 중학교 일반도서 독서량과 중학교 잡지 독서량, 중학교 잡지 독서량과 중학교 만화 독서량 등의 관계는 유의성 여부가 일치하지 않는다.

〈표 11〉 중학교 재학시 자료유형별 독서량 간의 상관계수

비교		기준	중학교	
			만화	잡지
중 학 교	도서		0.35	0.25
	p_value		0.00**	0.03*
	만화			0.21
	p_value			0.07

유의수준 \*: 0.05, \*\*: 0.01

라. 초등학교 시기 독서량의 상관관계

응답자들의 취학전의 자료유형별 독서량과 초등학교 시기 자료유형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초등학교 시기 자료유형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1) 초등학생 이전 아동도서 독서량과의 상관관계

〈표 12〉은 취학전의 독서량과 초등학교 자료(일반도서, 만화, 잡지)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취학전의 독서량과 초등학교 만화, 잡지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는 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취학전 독서량과 초등학교 일반도서 독서량은 유의수준 1%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취학전 독서량이 초등학교 일반도서 독서량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관계별 유의성 여부와 비교해보면 세 가지 상관관계 가운데 초등학교 일반도서 독서량과 취학전 독서량의 관계는 유의성 여부가 일치하지 않는다.

〈표 12〉 초 입학 전과 초등학교 독서량 간의 상관계수

비교		기준	도서(초)	만화(초)	잡지(초)
취학전(p-value)			0.40(0.00**)	0.16(0.12)	0.13(0.35)

유의수준 \*: 0.05, \*\*: 0.01

(2) 초등학생 시기 자료유형별 독서량과의 상관관계

〈표 13〉은 초등학교 자료(일반도서, 만화, 잡지)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초등학교 일반도서와 만화 독서량, 잡지 독서량 간에는 각 유의수준 1%와 5%하에서 상관관

계가 존재하였다. 해당 자료 간 상관계수는 모두 양수로 나타나 초등학교 시기의 잡지의 독서량이 증가할수록 동시기의 일반도서와 만화도 많이 읽힘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관계별 유의성 여부와 비교해보면 세 가지 상관관계 가운데 초등학교 일반도서 독서량과 초등학교 만화 독서량, 초등학교 일반도서 독서량과 초등학교 잡지 독서량 등의 관계는 유의성 여부가 일치하지 않는다.

〈표 13〉 초등학교 재학시 자료유형별 독서량 간의 상관계수

비교		기준	초등학교	
			만 화	잡 지
초등학교	도 서		0.21	0.40
	p_value		0.05	0.00**
	만 화			0.37
	p_value			0.02*

유의수준 \*: 0.05, \*\*: 0.01

### 3.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앞에서 제시된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45개 상관관계 가운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유의성 여부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17개로 나타났다. 이전 연구와 동일하게 유의성을 가지는 경우, 그러면서도 상관계수가 높은 상관관계를 신뢰성이 높은 상관관계로 해석할 수 있고 오랫동안 적용될 수 있는 이론에 가깝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일관성 있게 유의성을 가지면서 상관계수가 높은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행한 분석 결과 가운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가장 주목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독서량과 다른 시기의 독서량이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독서량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시기의 일반도서 독서량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점이다. 대학생들의 경우 만 18세에서 27세까지 비교적 다양한 연령대에 있어 상당수는 초등학교 이전 시기를 기억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고등학생들의 경우 대다수가 만 15세이기 때문에 어린 시기의 독서기억을 더욱 정확하게 회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전 연구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오래전에 태어난 대학생들의 경우 그들이 경험한 독서환경이 고등학생들의 그것과 차이가 있어 독서자료의 부족함이나 환경의 부적합 등의 원인 등 때문에 실제로 상관관계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에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더욱 정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 IV. 결 론

### 1. 분석 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장시기별 자료유형별 독서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내용과 비교하였다. 여고생들과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유의성이 있으면서 높은 상관관계(상관계수 0.20이상)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시기의 일반도서 독서량은 초등학교 시기의 일반도서, 그리고 중학교 시기의 일반도서, 만화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있다.
2. 고등학교 시기의 만화 독서량은 초등학교 만화 독서량, 중학교 시기의 만화 및 잡지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있다.
3. 고등학교 시기의 잡지 독서량은 초등학교 잡지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있다.
4. 중학교 시기의 일반도서 독서량은 초등학교 재학시의 일반도서, 만화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중학교 시기의 만화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있다.
5. 중학교 시기의 만화 독서량은 초등학교 시기의 만화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있다.
6. 중학교 시기의 잡지 독서량은 초등학교 시기의 잡지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있다.

이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시기에 특정 자료에 대한 독서량은 다른 시기의 동일자료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높다. 이는 특정시기에 특정자료에 대한 독서량이 많을 경우 다른 시기에도 역시 동일 자료의 독서량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고등학교 시기의 일반도서 독서량은 중학교 시기의 만화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높고, 중학교 시기의 일반도서 독서량은 초등학교 시기의 만화 독서량과도 상관관계가 높다. 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만화를 많이 읽는 학생들은 상급학교에서 일반도서를 많이 읽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셋째 고등학교 시기의 만화 독서량과 중학교 시기의 잡지 독서량이 상관관계가 있다.

###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특정 자료에 대한 독서를 많이 하면 성장하면서 상급학교에서도 해당 자료에 대한 독서를 많이 하게 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독서지도를 통하여 같은 종류의 책을 많이 읽게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만화책을 많이 읽는 학생들은 상급학교에서 일반도서를 많이 읽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만화책도 해악한 내용이 아닌 경우 많이 읽도록 장려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